

아동의 읽기에 대한 인식*

Children's Perception of Reading

김 영 실**

Kim, Young Sil

심 성 경***

Sim, Sung 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s perception of reading. The researchers interviewed 120 children aged 5 to 7 (40 for each age group) by using a specially designed interview format. The study of Johns (1973) was referred to as a guide in preparing the format. Responses of the children wer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worked out on the basis of the researchers'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ies and percentiles by age group. χ^2 test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1) The younger the children, the higher the rate of showing no response or of responding only to concrete incidents or things. Older children in general showed higher responses relevant to reading comprehension than younger ones. (2) Older children were more inclined than younger ones to regard the process of reading as a skill-oriented, teacher-based process. (3) Children in these age groups showed little perception of reading's objectives of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의 어느 영역에서나 교수와 관련된 는 주제에 대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인식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동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에 기초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읽기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읽기·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읽기·쓰기 교수와 관련되는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인식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의 읽기·쓰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읽기 학습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시각적 지각에서조차 개념적 기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Downing, 1973, 1986) 개

* 본 연구는 1993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념 자체가 성인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사실 (Athey, 1983; Mayfield, 1983; Reid, 1966)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아동의 읽기 개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많은 아동들이 읽기 활동의 특징·목적에 대한 인지적 혼동의 상태에서 읽기라는 학습 과제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 심각한 초기 읽기 교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Downing, 1973). 읽기에 대한 인식은 읽기 학습 및 이후의 성취에 중요한 요인이다(Johns, 1973).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발달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Dwoning, Ayer, & Schafer, 1978).

Reid(1966)의 “Learning to think about reading” 이후 아동의 읽기 학습 과제에 대한 개념이 연구되어 왔고 1960년대부터 아동의 문해 발달에 대한 “Emergent Literacy”의 견해가 제시된 후 이를 아동의 문해 교수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Hiebert, 1986; McCormick & Mason, 1986).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있다(김영실, 1991; 박혜경, 1990; 이기숙, 김영실과 현은자, 1993). 그러나 교실 적용의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아동의 읽기·쓰기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읽기의 궁극적 목적은 이해이며 그 기능은 의사소통이다(Athey, 1983). 읽기는 이해를 위한 도구적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특한 사회적 상황이 아동에게 읽기 학습에 대한 과중한 압력을 주고 있다. 읽기는 곧 학업 성취요 학습이라는 결론은 아동에게 읽기 학습의 시작부터 이 과제에 대한 긴장을 주며 후의 읽기 속도, 이해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Athey, 1983; Jalongo, 1992). 읽기에 대한 올

바른 개념없이 글자 해독만을 강조하면 읽기란 학교 밖의 실생활과는 무관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Downing, 1973 재인용). 그렇다고 “때가 되면—”식의 무간섭주의의 입장도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읽기 학습’이라는 압력을 고려한다면 인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처음 경험은 아동에게 행복하며 성공적이고 보람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아동의 발달과 능력에 적절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5, 6, 7세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읽기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읽기교수방법의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또한 과도한 학업 성취 요구가 주어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동의 발달, 흥미, 요구에 맞는 읽기 활동을 고안, 계획하는데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읽기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읽기 학습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 연구의 고찰

1. 읽기 개념의 성격

읽기 학습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읽기 학습의 결정적인 요인을 밝히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의 관심이다. 큰 관심 하에 이루어진 연구들의 결과 시각적 지각이 중요 요인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개념적 요인의 중요성이 밝혀졌다(Downing, 1973; Mayfield, 1983). 특히 읽기 학습에 실패한 아동들의 연구에서 시각적 기초가 아닌 개념적 기초가 중요하며 실제 교수에서 이러한 사실이 고려되고 있지 못함이 지적되었다(Downing, Ayer, & Schaefer, 1978).

읽기에 대한 개념적 기초란 읽기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인식으로 영·유아기를 통해 형성되는 문자언어인식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문자언어인식이란 왜 사람들이 읽으며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Taylor, 1986). 이 문자언어인식은 문어의 기술적 측면, 말과 인쇄된 문자가 관계되는 원리, 문어의 기능, 문어의 조직 및 표현 방식에 대한 도식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기초 지식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직접적이고 구조화된 경험을 통해서 학습시키기는 어렵다. 비구조화된 경험을 통해 막연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명확한 이해를 하기까지 발달된다고 여겨진다(Taylor, 1986). 아동은 의미있고 전후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제시되는 인쇄된 문자들을 경험함으로써 문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McCormick & Mason, 1986). 따라서 아동의 자연스런 사고 과정을

통해 언어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게 되도록 언어 사용의 실제적인 목적이 뚜렷한 경험 및 활동을 줄 것이 권고되고 있다(Downing, 1973; Goodman, 1983). 읽기학습 활동 중 아동이 읽기 활동의 주체로서 기능적이며 유의미한 경험을 한 경우, 의사소통·이해 지향적인 총체적인 읽기 개념을 갖게 되는 반면, 성인주도의 기술 훈련 및 습득 위주의 교수방법을 받은 아동은 해독 지향적인 읽기 개념을 갖게 된다(Wing, 1989). 즉 읽기 교수를 위해 교사가 사용한 방법은 아동의 읽기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아동의 읽기에 대한 인식은 읽기 학습 동기, 읽기 속도, 그리고 이해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Wing, 1989 재인용).

요약하면 아동의 읽기에 대한 개념은 영·유아기를 거쳐 그 기초가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종류의 개념을 갖게 된다.

2. 아동의 읽기에 대한 개념

아동들이 읽기의 특징이나 목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읽기 학습에 실패한 학동기 아동의 읽기에 대한 개념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주로 면접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이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국민학교생들이 “잘 읽는다는 것은 빨리 읽는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읽기 과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Johns, 1973 재인용) 나타났다. 즉 읽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의미’라는 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Reid의 연구(1966)이다. 5세 남아

아동 12명의 읽기 개념에 대해 1년 동안 3회에 걸쳐 개별 면접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자신들이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읽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거의 없었다(Johns, 1986 재인용). 읽기 과정에 대해 막연한 예측만을 하였으며 읽기의 성격, 읽기를 구성하는 활동, 목적, 용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념이 부족했다.

Downing(1973)는 구체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질문을 할 경우, Reid(1966)의 연구와는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읽는 그림, 노선번호가 써있는 장난감 버스 등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대상 아동들이 읽기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Reid(1966)나 Downing(1973)이 각각 12명, 13명의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비하여, Weintraub와 Denny(1965)의 연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1학년 아동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읽는 방법을 배우고 싶니?”, “그 이유는?”, “1학년에서 읽기를 배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아동의 1/4은 읽기 학습의 의미있고 논리적인 목적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1/3은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유치원 아동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 24명씩 168명을 층화표집하여 면접 조사한 Johns와 Johns(1971)의 연구에서는 70%가 “읽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모호한 대답을 하였으며 4%만이 해독 및 의미 이해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읽기를 의미 이해와 연결시키는 반응이 적었던 Johns와 Ellis(197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Johns와 Johns(1971)는 따라서 교사가 읽기 과정에서의 의미의 역할에 대해 아동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함을 지적했다.

Johns와 Ellis(1976)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아동 1,055명을 대상으로 읽기의 성격과 과정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하고 이것을 다음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범주 1-무반응, 모호한 답변, 무관계한 답변, “몰라요”; 범주 2-교실에서 진행되는 활동 절차와 연결된 설명; 범주 3-해독, 또는 단어 인지 과정으로 특징짓는 답변; 범주 4-이해 과정으로 정의하는 답변; 범주 5-해독과 이해로 정의하는 답변이다. 분석 결과 읽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1학년의 경우 57%가 무반응이었으며 인지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은 3% 뿐이었다. 80%의 아동이 읽기를 의미 이해와 연결시키지 않았으며 대부분 해독이나 교실에서 일어나는 책의 사용과 관계되는 구체적인 행위에만 연결시켰다. 또한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읽기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유아의 문해 발달에 대한 Emergent Literacy의 견해가 제시되면서 3,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어 인식 수준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의 문자 언어 인식은 막연한 인식 수준이지만 일찍부터 시작되며 이는 유아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언어 사용자로서 행위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인 기초임을 지적하고 있다(Goodman, 1983; Hiebert, 1986; Taylor, 1986). 유아들은 인쇄된 글자 자체를 왜곡시켜가면서까지 의미를 찾으려는 행위를 하였으며(Athey, 1983), 문자가 제시되는 물리적, 맥락

적 단서들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문자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시도들을 하였다(김영실, 1991; Goodman, 1983).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시도는 3, 4세에 활발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줄어들어 5세에는 자발적인 시도가 줄어들거나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Ferreiro, 1986; Goodman, 1983; Sulzby, 1988). 이는 아동이 자신의 문자 사용 원리를 조정 내지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껴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자발적인 의미 위주 읽기 시도들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읽기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들은 읽기의 성격이나 과정, 목적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어린 3, 4,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Emergent Literacy의 견해에 따른 연구에서는 유아는 문자가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과정에 대한 이해는 읽기 학습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생각할 때(Johns, 1973), 이러한 사실을 읽기 교수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Downing, 1973; Mayfield, 198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5, 6, 7세 아동 각 4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 분포는 5년 0개월부터 7년 9개월이었다. 대상 선정을 위해, 이리, 군산, 전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중 유아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종류로 분류되는 3개 유치원과 2개 국민학교를 임의로 선

정하였다. 유치원에서는 5세반과 6세반, 국민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과 1학년 학급 각각 한 반씩을 본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에 의해, 면접에 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으리라 판단된 남녀 아동 각 10명씩 총 120명을 선정하였다. 이를 성별, 연령별, 기관별로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령별, 성별, 기관별 연구대상 아동의 구성

성		연 령			
		5 세	6 세	7 세	전 체
남	사립	20	10	0	30
	공립	0	10	20	30
여	사립	20	10	0	30
	공립	0	10	20	30
전체		40	40	40	12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읽기에 대한 인식 면접지가 사용되었다. 면접지는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Johns, 1973; Reid, 1966)를 참고로 예비 면접 문항과 분석 범주를 작성한 후, 4세, 5세, 6세 그리고 7세 아동 각각 4명씩을 대상으로 예비 면접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질문의 수를 줄이고 몇 개 문항은 문구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본 면접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접 문항을 사용하였다.

- (1) 읽기란 무엇일까?
- (2) 어떻게 읽기를 배울까?
- (3) 왜 읽기를 배워야 할까?

본 면접에서는 위의 세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면접 대상 아동의 읽기에 대한 사고의 맥락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유아의 반응을 격려하기 위해 다음의 두가지 질문을 하였다.

- (1)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니?
- (2) ○○가 읽을 줄 아는지 어떻게 알았니?

읽기의 성격, 즉 “읽기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Johns와 Ellis의 연구(1976), Johns의 연구(1986)를 기초로 예비면접을 거쳐 보완된 5가지 범주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읽기의 성격에 대한 반응의 분류 범주 5가지와 그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읽기의 성격에 대한 반응의 분석 범주 및 예

범 주	범주의 정의 및 반응의 예
범 주 1	무반응, “모른다”는 답변
범 주 2	읽기에 관련되는 사물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 예) 두더지와 밤나무요/백설공주 보는거요/책 보는거요
범 주 3	해독, 단어 인지 절차를 언급 예) 글씨 읽는거/글씨 아는거
범 주 4	이해 및 사고 과정을 언급 예) 마음으로 생각해서 아는 것/책을 읽어 배우는 것*
범 주 5	주위의 사회적, 교육적 기대를 반영하는 답변 예) 좋은거요/공부 잘하는 거요

*는 Johns의 연구(1986)에서 인용된 답변의 예임.

읽기 학습 과정, 즉 “읽기를 어떻게 배울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앞에 제시한 5가지 범주에 Wing의 연구(1989) 결과를 반영하

여 보완, 수정한 4가지 범주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3>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한 반응의 분석 범주 및 그 예

범 주	범주의 정의 및 반응의 예
범 주 1	무반응, “모른다”는 답변
범 주 2	특정기술의 습득 과정, 성인 지시적 과정으로서의 읽기 학습 과정 예) 외워서요/학교나 학원에서요/글씨를 배워서요
범 주 3	총체적 과정, 학습자 주도의 과정으로서의 읽기 학습 과정 예) 놀면서 재미있게 봐요/머리로 생각해서요/혼자서 읽어요
범 주 4	자연적 성숙의 결과로서의 읽기 학습 예) 커서 알아요/어른이 되서 알아요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당 20명 씩을 무선적으로 표집하여 총 80명에 대하여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간의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분석자간의 신뢰도는 90%였고 분석자내 신뢰도는 평균 97%였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1993년 9월 14일-16일에 예비 면접을 실시, 예비 면접 문항과 분석 범주를 수정한 뒤에 1993년 10월 5일부터 11월 4일에 걸쳐 본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개별적으로 연구 대상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유치원은 자유선택 시간을 이용하여 별도의 교실에서 하였고 국민학교 1학년은 방과 후 대상 아동의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면접은 유아교육 석사학위소지자로 유치원 교사로서의 경력도 있는 연구보조자 1인이 각 아동당 약 5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와 분석

아동의 읽기의 성격, 과정 및 읽기 학습 목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이것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읽기에 대한 인식의 면접 결과를 연령별로 빈도 및 백분율을 내고 χ^2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및 논의

1. 읽기의 성격에 대한 인식

아동의 읽기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사물이나 사건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개념

수준이었다.

“읽기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읽기의 성격에 대한 범주별, 연령별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

범 주	연 령			계
	5 세	6 세	7 세	
범주 1	23(57.5)	29(72.5)	7(17.5)	59(49.2)
범주 2	12(30.0)	5(12.5)	15(37.5)	32(26.7)
범주 3	1(2.5)	2(5.0)	14(35.0)	17(14.2)
범주 5	4(10.0)	4(10.0)	4(10.0)	12(10.0)
총 계	40(100)	40(100)	40(100)	120(100)

$\chi^2=36.56, df=6, p<.001$

()=%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면접 대상 아동의 49.2%가 무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26.7%였다. 읽기와 관련되는 절차로 책을 보는 것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그림을 보는 것이라는 답변도 5세 1명, 6세 1명이 있었다. 이는 글자와 그림간의 구별을 못하는 것으로 문자언어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외에 5세 아동 3명이 책의 제목-헛님과 달님, 사자의 꼬리-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Johns와 Ellis(1976)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 시기 유아의 사고가 구체적인 사고 수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읽기 자체의 성격에 대해 개념이 없거나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답변이 5세는 87.5%, 6세는 85%, 7세는 56%였다. 17%의 유아만이 “글씨를 읽는 것”, “글씨를 보는 것”과 같이 해독과

관련된 답변을 하였다. 그나마 17% 중 89%의 반응이 7세 아동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불명확한 개념 수준인 범주 2에 대한 답변에서 5세나 7세에 비해 6세에서 반응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3, 4세에서는 ‘읽는 척하기’가 증가하다가 5, 6세에는 ‘읽는 척하기’가 줄어 들고 자신은 글자를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Sulzby(1986)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 아동들이 읽기에 있어 관습적 사용방법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어 개념 수정 및 재구성

과정으로 신중한 반응을 한 결과라 해석된다.

읽기를 이해 및 사고과정이라고 여기는 반응(범주 4)은 5세, 6세, 7세 모두 한 사례도 없었다. 읽기 학습과 관계되는 사회적, 교육적 기대를 반영하는 반응(범주 5)은 12%로 5, 6, 7세 각각 4명씩이었다.

본 연구 대상 중 7세 아동의 반응을 Weintraub와 Denny(1965)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7세 아동의 읽기의 성격에 대한 반응의 분포

	범주 1 (무반응)	범주 2 (구체적 사건·사물)	범주 3 (해독)	범주 4 (이해)	범주 5 (사회적 기대)
본연구(N=40)	17.5	37.5	35.0	0.0	10.0
Weintraub & Denny(N=108)	27.0	33.0	7.0	20.0	13.0

<표 5>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있어 무반응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읽기를 해독으로 보는 답변의 비율이 Weintraub와 Denny(1965)의 연구 결과에 비해 5배 많은 반면, 이해로 보는 비율은 Denny 등의 연구가 20%로 훨씬 높았다. 즉 우리나라 아동들은 읽기를 궁극적 목적인 이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단으로서의 해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무반응의 비율이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해독과 관련되는 반응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2.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즉 “어떻게 읽기를 배울까?”에 대한 반응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읽기 학습과정에 대한 범주별, 연령별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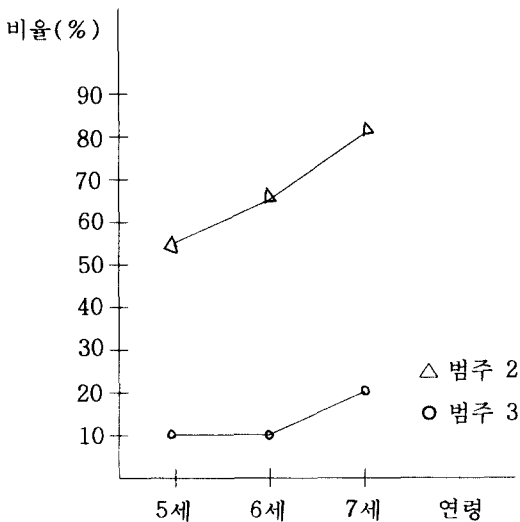
범 주	연 령			계
	5 세	6 세	7 세	
범주 1	11(27.5)	10(25.0)	0(.0)	21(17.5)
범주 2	21(52.5)	26(65.0)	32(80.0)	79(65.8)
범주 3	4(10.0)	4(10.0)	8(20.0)	16(13.3)
범주 4	4(10.0)	0(.0)	0(.0)	4(3.3)

() = %

연령이 낮을수록 무반응과 해독 측면을 강조

하는 답변이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독 측면을 강조하는 답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읽기 학습에 대해 수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면접 대상 아동의 65.8%가 읽기는 외부 성인으로부터 특정한 읽기 기술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었다. 5세의 52.5%, 6세의 65%, 7세의 80%가 읽기 학습 과정을 성인 주도적 기술 훈련과정이라 여기고 있는 반면, 5세의 10%, 6세의 10%, 7세의 20%만이 주변 일상 생활 속에서 아동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능동적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7세의 경우 무응답이나 자연적 성숙으로 보는 답변이 전혀 없이 80%의 답변이 범주 2의 답변이었다. <그림 1>은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한 아동의 반응 중 범주 2와 범주 3의 반응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한 반응의 연령별, 범주별 비교

<그림 1>에 나타났듯이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읽기 학습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읽기 기술을 가르치는 성인으로는 5, 6세 아동의 경우 '엄마'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그 외 손위 형제를 이야기한 아동들도 있었다. 7세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나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반응을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들이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해 점점 기술 습득 지향적, 성인 주도적 과정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읽기 학습 과정에서 주위의 성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관습적 언어 사용 규칙 준수에의 요구이다. 3, 4세 경까지는 자율적이며 독자적인 문자 구성 원리에 따른 읽기·쓰기 행위가 간과되다가 학동기가 되면서 주위로부터 이러한 행위가 부정적으로 평가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문자사용 행위만이 격려된다. 이 과정에서 성인을 지식의 근원으로 보고 인지적인 타율성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둘째, 읽기 교수 방법이다. 정소영(1989), 정진화(1985)에 따르면 실제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 사용이 고무되는 총체적 접근법보다는, 자모음 암기 위주의 음소적 접근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독 위주의 음소적 접근법에서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자로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읽기 교수 방법에 따라 아동이 읽기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갖게 된다는 Wing(1989, 재인용)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준다. Emergent Literacy의 견해에서 읽기 학습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아동의 역할을 강조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읽기 교수 방법에 대해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흥미로운 반응으로는 4세 유아중 10%가 “점점 커서 알아요/어른이 되어서 알아요”와 같이 주위의 성인에게서 들은 성숙주의적 견해를 반영하는 답변을 하였다.

3. 읽기 학습의 목적에 대한 인식

읽기의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읽기 학습의 목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읽기의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인 의미 이해나 의사소통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 학습의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자율적인 동기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기대에 따른 타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왜 읽기를 배워야 하는지 물었을 때, 5세 아동의 25%가 무반응이었다(표 7 참조).

〈표 7〉 읽기 학습의 목적에 대한 범주별, 연령별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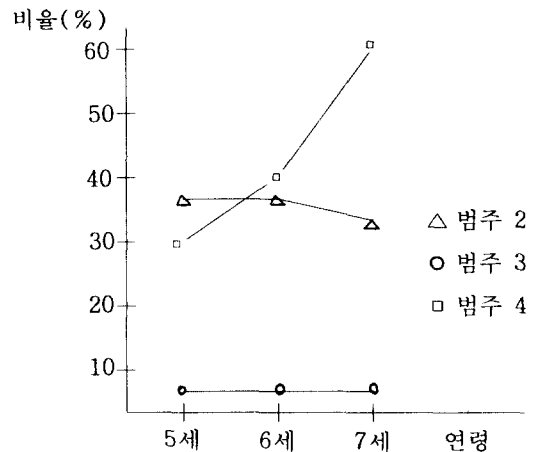
범주	연령			계
	5세	6세	7세	
범주 1	10(25.0)	5(12.5)	1(2.5)	16(13.3)
범주 2	15(37.5)	16(40.0)	13(32.5)	44(36.7)
범주 3	2(5.0)	2(5.0)	2(5.0)	6(5.0)
범주 4	13(32.5)	17(42.5)	24(60.0)	54(45.0)
총계	40(100)	40(100)	40(100)	120(100)

() = %

이는 읽기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나타내며 자발적인 학습 동기가 결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읽기 학습의 목적에 대해 5세의 37.5%, 6세의 40%, 7세의 32.5%가 글

자 해독- 읽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답변을 하여 단순한 기술 습득 정도로 제한된 개념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문자는 의사소통·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공부 잘하기 위해/학교에 가기 위해”와 같은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답변이 5세는 32.5%, 6세는 42.5%, 7세는 60%로 읽기의 목적이 아동 내부의 필요성이 아닌 외부의 요구에 따른 타율적 개념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읽기의 목적을 이해로 보는 비율은 5, 6, 7세 각각 5%로 같음을 고려할 때, 아동들은 읽기 학습의 목적은, 글자를 읽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나 학교에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겠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즉, 아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읽기를 배우는 목적은 곧 공부 잘하기 위해서라도 개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2〉 읽기 학습의 목적에 대한 반응의 범주별, 연령별 비교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5,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읽기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어서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 사고 수준이었다. 읽기 학습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 습득 과정이며 성인 지시적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인지적 타율성을 보였다.

둘째, 학업 성취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기대가 아동의 읽기 개념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동은 읽기 학습의 목적을 해독이라는 기술 습득 정도로 생각하거나 학업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읽기 학습의 목적을 학업 성취에 두는 경향은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뚜렷하였다.

문자의 주기능은 의미 전달이다. 문자라는 수단의 사용 능력을 얻어 여러가지 문자로 표현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미 창조 행위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자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 인지적 갈등을 걸쳐 구성된 지식만이 진실로 이해된 개념이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도전적 태도야말로 학습을 질적·양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동기이다. 읽기지도에서도 이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이 읽기의 성격·학습과정·목적올 바르게 인식하여 읽기 학습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무되는 활동들이 고안되어야겠다. 문자 언어 교육에서 자발적인 읽기·쓰기의 중요성과 그 장기적인 효과가 강조됨을 감안할 때, 의사소통을 궁극적 목적으로 아동주도적인 문자 언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영실(1991). 상황적 읽기 교수 전략이 유아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혜경(1990). 유아를 위한 총체적 언어 교육 접근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기숙·김영실·현은자(1993). 유아의 문자 언어 교육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 보고서, 제5집, 청삼아동문제연구소.

정소영(1989). 유치원에서의 읽기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홍자(1984). 5세 유아의 읽기 교수 방법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they, E. (1983). Language development factors related to reading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6, 197-203.

Downing, J. (1973). How children think about reading. In E. E. Ekwall(Eds.),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teaching about reading(pp. 43-57). Ohio: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Downing, J. (1986). Cognitive clarity: A unifying and cross-cultural theory for language awareness phenomena in reading. In D. B. Yaden, Jr. & S. Templeton (Eds.),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beginning literacy(pp. 31-40).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

- Downing, J., Ayers, D. & Schaefer, B. (1978). Conceptual and perceptual factors in learning to read. Educational Research, 21, 11-17.
- Ferreiro, E. (1986). The Interplay between information and assimilation in beginning. In W. H. Teale & E. Sulzby,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pp. 15-49). Norwood, NJ: Ablex.
- Goodman, Y. M. (1983). Beginning reading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inciples, In P. O. Robert & A. D., Frances, Developing literacy(pp. 68-84).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Hiebert, E. A. (1986). Issue related to home influences on young children's print-related development. In D. B. Yaden, Jr. & S. Templeton,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beginning literacy(pp. 145-158).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Jalongo, M. R. (1992). Early childhood language arts. Boston: Allyn and Bacon.
- Johns, D. (1973). How children think about reading. In E. E. Ekwall(Eds.), Psychological factor in the teaching of reading (pp. 43-57). Ohio: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Johns, J. L. (1986). Student's perception of reading: Thirty years of inquiry. In D. B. Yaden, Jr. & S. Templeton,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beginning literacy(pp. 31-40). Portsmouth, N. H.: Heineman Educational Books.
- Johns, J. L., & Ellis, D. W. (1976). Reading: Children tell it like it is. Reading World, 16, 115-128.
- Johns, J. L., & Johns, A. L. (1971). How do children in the elementary school view the reading process? The Michigan Reading Journal, 5, 44-53.
- Mason, J. M. (1980). When do children begin to read: An Exploration of four year old children' letter and word reading competenc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15, 203-27.
- Mayfield, M. I. (1983). Code systems instruction and kindergarte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nature and purpose of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6, 161-168.
- McCormick, C. & Mason, J. M. (1986). Intervention procedures for increasing preschool children's interest in and knowledge about reading. In E. Teale & E. Sulzby(Eds.), Emergent Literacy(pp. 90-115). NY: Ablex.
- Reid, J. F. (1966). Learning to think about reading. Educational Research, 9, 56-62.
- Sulzby, E. (1988). A Study of children' early reading development. In A. D. Pellegrini (Eds.), Psychological bases for early education(pp. 39-75). NY: John Wiley & Sons Ltd.
- Taylor, N. E. (1986). Developing beginning literacy concepts: Content and context. In D. B. Yaden, Jr. & S. Templeton,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Beginning Literacy(pp. 173-183).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

Weintraub, S., & Denny, T. P. (1965). What do beginning first graders say about reading? Childhood Education, 41, 326-

327.

Wing, L. A. (1989). The Influence of preschool teachers' beliefs on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reading and writ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61-74.